왕(王) 라이프 스타일

(시편 72:1~19)

1.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3.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4.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5.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6.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7.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왕(王)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왕(王) 라이프 스타일'
우리는 살면서 '왕 같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유학 중에 악명 높은 세 명의 남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과 섬김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보다 아내의 섬김이 훨씬 더 크고 많았던 세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런 상황의 남편들이 '왕처럼 산다.'라는 소리를 비유적으로 하는데, 이 말은 '부족함 없이 누린다, 우두머리 노릇을 한다, 꼼짝 않고 입만 놀린다.'라는 의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래 '왕(王)'이라는 한자어가 갖는 본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렸던 왕들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권력과 그들의 소유입니다. 산해진미나 많은 후궁들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보다 신앙적입니다.
임금 왕(王)자에는 한 일(一)자가 세 개 놓여 있고 그것을 지나는 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늘과 땅과 사람을 두루 꿰뚫어 이어주는 존재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왕의 의미입니다. 즉 본래 글자의 의미대로 말하자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이끄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군으로 불리는 왕들조차도 그 본래의 역할은 하늘과 백성을 이어주

는 자였습니다.
쉬운 예로 맹자의 “순천자존 역천자망(順天者存 逆天者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번영과 생존을 누리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왕은 하늘의 섭리가 땅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편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Messiah)는 ‘중재자 혹은 중개자(mediator)’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어주는 자입니다. 메시아는 이어주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기본적으로 선민에게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대제국의 왕들로부터 작은 성읍이나 부족을 다스리는 자도 왕으로 일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범위를 더 좁히면 한 가정에서도 왕은 있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조차 왕 됨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왕입니다. 메시아는 스스로 왕이신 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는 종국적으로는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의 핵심은 이미 초림에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왕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민은 왕(王)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권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주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허락해주시는 것입니다.
선민은 부름 받은 자이자 구원 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 받은 자의 증거는 곧 라이프 스타일로 나타납니다. 왕 라이프 스타일 즉 이어주는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주는 라이프 스타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간구를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지은 시입니다. 내용은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나라의 후대 왕들에게 바라던 바를 솔로몬이 대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그로인해 주어질 메시아 왕국의 평강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어주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하늘의 뜻을 이 땅으로 이으시는 공의를 실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는 모든 선민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모든 선민들을 각자의 삶에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곧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의 선민 각자도 이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 안으

로 하나님의 판단과 의를 받아 흐르게 하는 자들이며, 이 세상 안에서는 어떤 존재에게도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서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도하다 산헤드린공의회에 붙잡혀서 맞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18~19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산헤드린공의회는 유대사회의 최고 결정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하려던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전하려는 것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듣는 사람을 하늘과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과 세상을 이어주게 하려 하심입니다. 왕(王)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왕(王) 라이프 스타일로 살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王)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본문 1~2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판단력과 공의가 이어짐을 위해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력은 정확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원문을 보면 ‘판단들’이라고 해야 합당합니다. 다시 직역해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들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는 말이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갖고 계신 올바르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관계가 공의입니다. 한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정되는 의는 정의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구는 바로 이러한 판단들과 공의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하므로 하늘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이어짐을 받은 백성들의 삶은 곧 성전을 생활화하는 삶으로서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어진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왕으로서 살게 됩니다. 하늘과 땅

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왕(王) 라이프 스타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면서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믿을 때에 나는 작은 메시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이 된 나는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왕 노릇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왕 노릇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판단들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삼각관계를 다시 살펴봅니다. 삼각관계 안에는 나와 하나님과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돈이나 물건 등의 사물이 있고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 부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왕입니다. 세상 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이어줘야 합니다. 그 대상이 돈이라면 돈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계실 것이고,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므로 하늘과 세상을 이어주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왕(王)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야만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삼각관계 안에서 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게 빼앗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곧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는 곧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들어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로 생각하는 행동은 세상이 마음에 들어옴으로 생겨난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은 곧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판단들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삼각관계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王)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이어주는 자입니다.

이러한 왕(王) 라이프 스타일의 삶의 내용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과 사업의 삼각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업을 잘 운영하고 경영하여 흑자를 남기는 사람을 훌륭한 사업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민 사업가는 사업을 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왕(王)자의 의미를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구원 받음의 증거이고 필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구원 받았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업가로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사업의 흑자가 아니라 왕(王)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들을 받음으로서 사업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업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자이고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타락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사업을 다스리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타락한 왕이 됩니다. 선민이 사업장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흑자가 아니라 왕(王)자이기 때문입니다.

선민으로서 아내나 남편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배우자와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이 배우자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배우자에게 빼앗겼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자에 대한 생각과 판단들이 전달되어옵니다. 이전에는 배우자에게 요구했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만족함을 얻을 때에, 이제는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전달되고 표현될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자와 하늘을 이어주는 자가 진정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배우자는 상대에게 이벤트를 잘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자 앞에서 왕(王)자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王)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부부관계입니다.

구원받은 선민이 부모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여 출세로 이끄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앞에 두고 왕(王)자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자녀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꼭 신앙적인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모든 삶의 구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자녀를 이어주는 왕이 되는 것이 참 부모의 모습입니다.

선민으로서 학자는 하늘과 학문을 이어주는 자입니다. 선민으로서 예술가는 하늘과 예술을 이어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왕(王)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몸과 삶을 왕(王)자를 쓰며 이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각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의 양자관계에 몰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없다면 세상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왕 노릇은 중단됩니다. 삼각관계에서 소외되었던 제삼자를 하늘로 연결시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양자관계에서 이삭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소외시켰을 때에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콸콸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삼각관계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심지어는 내 몸조차도 마음에서 소외시켜야만 합니다. 오직 마음이 하나님과의 양자관계에 몰입할 때에 이 몸은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왕(王)자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삼각관계의 세상이라는 변수의 자리는 끊임없이 대상이 바뀝니다. 세상을 이어주는 왕(王)자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며 세상을 소외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양자관계에 몰입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

는 것이 바로 왕(王)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와 하나님의 양자관계로 인해서 소외되었던 세상은 하늘과 연결될 기회를 나를 통해 갖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왕(王)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과 내 마음의 양자관계에 몰입함으로서 소외되었던 이 세상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 왕(王) 라이프 스타일의 주인공들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